

프로이트와 라캉에게 여성이 수수께끼였던 것처럼 여성에게 남성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는 마찬가지다. 남성에 관한 심층보고서인 《남자》가 주체이자 인간을 대표하는 대문자 남성의 죽음을 선포한다면 스타이넴의 두 책은 표준화된 몸에 맞서 상처나고 허물어진 여성의 몸에서 저마다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고 쓸모없는 말로 비난받아온 수다에서 세상과 소통해가는 여성의 힘을 발견한다.

책갈피산책

《남자》의

남성의 죽음 선포하고 위반의 정치 꿈꾼다

디트리히 슈바니츠 지음 | 인성기 옮김
들녘/A5신/478면/19,000원

김은하 | 문학평론가



친밀함에 대한 갈망과 뜨거운 정념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이 친화하고 연대하길 거북이에게 직립을 기대하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서로를 욕망하면 할수록 깊은 골이 지고 상처를 입는 이 관계는 비록 인생에 지루할 틈을 안 주는 은덕일지 몰라도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비탄과 분노는 얼마나 생생한가. 사랑을 통해 성장하고, 빛나는 생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이라면 그래서 다친 마음으로 '화성남자 금성여자' 류의 실용적 심리서를 '학습' 하고, 점을 치고, 심리상담실에 달려간 적이 있을 것이다. 갈등은 계급, 인종, 종교, 지역만이 아닌 남성과 여성 사이에도 존재하며, 적절한 이름도 없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비교적 진지하게 화해와 협상을 시도해온 것은 여성들이다. 그 이유가 권력없는 여성의 현실 때문인지, 심오한 성찰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분열중이거나 파괴를 향해 치닫는 남자를 구출하려는 마리아 일병과 은밀한 계락을 짜는, 신비 그 자체인 여성들은 문화적 재현물 속에 차고 넘친다. 프로이트와 라캉에게 여성이 수수께끼였던 것처럼 여성에게 남성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는 마찬가지다. 남자가 왜 갑자기 무겁게 입을 다무는지, 폭군 아버지처럼 간섭하고 통제하려는지 좀처럼 자기 내면을 드러내지 않는 남성이야말로 거대한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과대표장된 남성 존재 심층적으로 분석해

그래서 남성에 관한 심층적 보고서라 할 만한 슈바니츠의 《남자》(인

성기, 들녘)에 붙은 부제는 “지구에서 가장 특이한 종족”이다. 이 책은 Y 염색체를 가진 이 종족에게 코믹한 냉소와 안타까운 연민의 시선을 던지며 유쾌하고도 진지하게 남성으로 산다는 일의 희비극을 전달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책은 자기 이해를 필요로 하는 남성보다는 여성을 주 독자층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책의 서문은 “여성독자와 남성독자 여러분께”처럼 여성독자를 먼저 내세우며 시작해 “남자들의 부조리한 모습을 용납해달라”는 “부탁”을 경유해 “아낌없이 베푸는 감성의 고귀한 의미를 가르쳐준 모든 여성”에 대한 “감사”로 종결된다. 여기서 마치 집나가려고 가방을 싸는 엄마에게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사내아이의 불안한 내면이 보인다면 무리한 연상일까? 어쨌든, 왜 남성의 승고한 고뇌와 고난에 찬 현실을 모르냐고 호통치는 가부장적 담론에 비한다면 이 책은 색다르다. 그러나 여기

에서 남자와의 불편한 동거를 끝장내고 자매들에게로 돌아가려는 최근 서구사회의 흐름에 대한 남성의 불안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성애 관계와 가족을 벗어나 길 위에 선 여성들은 집 나간 노라처럼 죽지도 않고, 나혜석처럼 행려병자가 되지도 않은 채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나가며 활기차기 때문이다. 무리한 진술 혹은 간계에 찬 소문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페미니즘의 시대라면 이 새로운 세상에서 남성들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이미 기든스는 《현대사회의 성 사랑 그리고 에로티시즘》(황정미 외, 새물결)에서 친밀성 영역에서 일어나는 혁명을 보여주며, 남성들은 이제 페미니즘의 깃발 아래 설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선택권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성인 지은이는 우리 시대의 이 새로운 징후에 어떻게 화답하고 있는가. 과격하게 말하자면, 그는 주체이자 인간을 대표하는 대문자 남성의 죽음을 선포한다. 아니, 그런 남성이란 처음부터 없었던 풍문일 뿐이라고 말한다. “남자들이 과대평가받고 있는 존재이며 진화과정의 미아이자 실수한 오발탄”이라는 단호하고 과격한 선언은 이런 판단을 증명한다. 마초들에게 테러라도 당할 수 있는 이 위험한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자기 주체성에 대한 회의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타자만이 자기 자신을 회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부정과 회의는 오랫동안 여성의 몫이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라는 절망적 토로는 위대한 주체들의 사전에는 없기 때문이다. 위대한 남성은 간 데 없고, 이 남성이란 ‘성(城)’에 는 기사, 허풍쟁이 사기꾼, 위원회 위원들과 단골술집 친구들, 병든 지식인과 연구자, 가정의 폭군이 존재한다. 다채로움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들은 동질적인 종족으로 남성다움을 부여받고 연기하는 구성된 존재일 뿐이다. 실제로 이 책은 책 자체를 하나의 성으로 설정하고, 각 장이 되는 성의 방마다 남성의 초상화를 걸어두고, 소극장에서 남성이

라는 희비극의 연희를 보여준다. '구성주의' 관점을 빌려와 사회적 페르소나와 자기를 동일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혼란에 빠진 남성을 보여주는 이 책에서 남성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문화에 의해 구부러지고 만들어진 발명품에 불과하다. 남성성은 권력의 한 효과며, 그런 의미에서 남성 역시 타자일 뿐이라는 이 발언은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에 버금갈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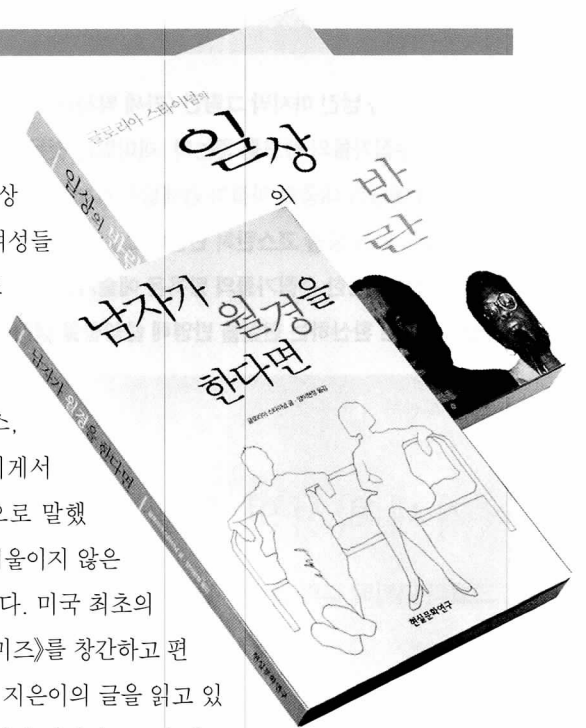
그러나 지은이의 여성에 대한 이해는 결코 새롭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여자는 아무런 문화적 표시가 필요 없다"거나 "남녀 역할의 도식 속에서 그녀가 어떤 행동을 하든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강조해야 할 아무런 필연성이 없다"는 식의 발언은 여성의 완전성을 전달하려는 의도에도 여성의 사회화 과정과 그 속에서 이뤄지는 여성의 혼돈과 분열을 간과한다. 이는 여성을 자연과 동일시하면서 비분명적인 존재로 상정하고, 그로 인해 억압의 다른 얼굴이기도 한 여성에 대한 신비를 유포해온, 가부장적 발상법과 닮아 있다. 가부장제를 지지하거나 극복하려거나 간에 여성을 신비와 동일시하는 관념에 대해, 여성 역시 혼란을 앓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측면까지 살펴보지 못한다면 남성학은 남성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고 반성하며, 무엇을 사죄하고 바꿀 것인지보다는 자기연민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문화적 금기인 월경 통해 가부장적 사회 비틀어

미국의 여성 운동가인 글로리아 스타이넴의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양이현정, 현실문화연구)의 표제글을 읽으면서 오래 전의 좀 코믹하지만 나름대로 진지했던 장면이 떠올랐다. 이 이야기의 제목은 아마도 월경에 관한 여성의 진실쯤이 될 것이다. 어린 시절 언니들의 생리대 심부름꾼이었던 필자는 언제나 약국 문을 씩씩하게 밀치며 '후리덤'을 달라고 외쳤다. 그러나 성장한 후에는 약국이나 슈퍼에 손님이 없기를 기다려, 조그만 소리로 '후리덤'을 달라고 속삭였다. 외침과 속삭임 사이에는 소녀가 된 여자아이가 있고, 여성되기를 수치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이 되게 하는 성별의 질서가 새겨져 있다. 여기에도 신문에 싸고도 시멘트 봉투에까지 넣은 생리대를 비밀스럽게 들고 방으로 향할 누이를 원망하며 '왜 나만 먹을 것 안 줘'라고 항의하는 남동생의 오해까지 고려하면 여성으로 산다는 일은 복잡하기만 하다. 월경에 대한 문화적 금기의 부당함을, 남성이 월경을 한다면 월경의 가치는 격상될 것이라는 발랄하기만한 상상력으로 공격하며 시작한 이 책은 얼핏 선정적인 제목 때문에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 막상 이야기의 숲을 헤쳐가다 보면 여성이 된다는 것을 수치스럽고 열등한 것인 양 의미화해온 가부장적 문화를 비틀면서 여성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재진유하려는 전복의 정치학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지은이는 표준화된 몸에 맞서 상처나고 허물어진 여성의 몸에서 저마다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고, 쓸모없는 말로 비난받아온 수

다에서 자신의 내면과 경험을 해석함으로써 세상과 소통해가는 여성들의 힘을 본다. 또한 마릴린 먼로와 포르노배우 린다 러블레스, 재클린 케네디에게서 그녀들이 온몸으로 말했으나 사회가 귀기울이지 않은 진실을 되살려낸다. 미국 최초의 여성운동 잡지 《미즈》를 창간하고 편집장으로 활동한 지은이의 글을 읽고 있으면, 자매애를 가진 저널리스트란 많은 여성에게 축복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가부장적 재현 속에서 여성에 관한 진실은 실종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글로리아 스타이넴 지음 | 양이현정 옮김
현실문화연구/A5신/284면/8500원

글로리아 스타이넴 지음 | 양이현정 옮김
현실문화연구/A5신/300면/11,000원

남성적 근대 극복해가는 여성의 자기정립과정 담아

이 책은 스타이넴이 여성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일상의 반란》(양이현정, 현실문화연구)과 묶어 읽으면 불우했던 한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약자들과 연대함으로써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불행을 넘어서는 전복의 기록이 되기도 한다. 여성 네트워크 만들기, 낙태 합법화 운동, 여성평등법 입법화를 이루기까지 그가 수많은 주변부 여성들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은 역자의 말처럼 여성들에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만족감"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세상의 주인이 되라고 격려한다. 그래서 스타이넴은 여성들에게 막막한 어둠 속에서 우울증을 앓기보다는 "변화의 강물을 헤엄쳐 건너기"라고 말한다. 역사하면 어떻게 하냐고? 여성이 자신을 믿는다면 결코 역사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존중감을 되찾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말하는 듯하다. 주체의 왜소화가 환상이 아닌 일상의 현실로 경험되는 오늘날 스타이넴의 책에서 보았던 위반의 정치를 꿈꾸는 여성들이 남성적이고 반생명적인 근대 극복을 모색해가는 주제로 자기정립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유쾌하다. 비록 여전히 많은 사회적 장애물들이 존재하고, 여성 자신이 자기의 장애물이 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현실은 복잡해 이 책의 격려가 자책과 소외로 돌아오는 순간도 없지 않았지만 말이다. ■

김은하씨는 문학평론가며 《여성과 사회》 편집위원이다. 현재 중앙대 등에 출강하고 있다. <완료된 전쟁과 끝나지 않은 이야기> <한국문학에 나타난 남성의 몸>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